

##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 시기 체육행사의 유희적 특징\*

이나영\*\*

김정은의 지도하에 신설된 북한의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는 2013년 신설되어 매해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대중체육경기대회이다. 주체연호 대신 서기연도를 표기한 것부터 차별성을 띠는 도대항대회는 기존의 대중체육대회와 달리 연령, 성별, 계층 구분 없이 전 인민을 대상으로 행정단위별 선수선발을 하며, 응원단의 퍼포먼스를 경기순위에 반영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장치를 두었다. 또한 관람요소를 고려해 전문체육경기과 인민의 취향이 반영된 경기로 구성하여 타 대회에 비해 유희성이 두드러진다. 도대항대회는 김정은 집권 초기 '체육강국 건설' 정책을 반영하며 사회주의문명국 사업의 표본으로 제시되었다. 북한은 대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정상국가화를 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인민의 취향을 반영하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멀어지는 인민들을 다시금 국가의 테두리에 묶어 두는 효과를 기대한다. 더불어 새롭게 건설된 체육시설을 통해 인민들의 체육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식 스포츠복지의 일환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의 체육 취향에 치중되어 있어 오히려 체육참여 불평등을 보여 주기도 하고, 인민의 취향을 국가가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시도로도 여겨진다.

주제어: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북한대중체육,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 건설, 북한체육, 유희성

\* 이 연구는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독립연구자.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로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체육대회가 있다. 그것은 1960년 김일성이 만든 인민체육대회, 1970년 김정일이 발기한 예술인체육대회와 2013년 김정은의 지시로 시작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이하 도대항대회)이다.<sup>1)</sup> 『로동신문』에서 규정한 대로 보자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대항대회는 북한 체육 분야에서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능력의 상징물로 간주된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행보는 체육강국 건설이었다. 새 지도자는 백두혈통이라는 권력 정통성을 인민에게 확인시키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체육을 정치에 적극 활용했다.<sup>2)</sup> 이에 힘을 더한 것은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의 성적이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데 비해 2012년은 메달 수에 차이는 없지만,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확보했다. 북한이 자신 있어 하는 역도와 유도에서 메달 개수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보였고, 이는 내부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보여 주기에 효과적인 수단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2013년 시작된 도대항대회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각종 종합체육경기대회와 차별성을 띤다. 이 대회는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배구와 농구 등의 구기종목, 줄다리기 등의 레크리에이션(체육유희) 종목으로

---

1) “체육열풍과 더불어 마련된 의의깊은 체육대회들,” 『로동신문』, 2019년 10월 13일.

2)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치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6호(2015), 453쪽.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종합경기대회는 동계와 하계를 아우르며 수차례 진행되지만, 일반 대중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행정구역 대항 체육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인민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는 체육유희경기나 노동자들이 선수로 참가하는 체육축전,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는 민족체육경기대회 등 부문이나 계층별 대중체육대회는 진행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인민 전 부문을 참가 대상으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연례행사라는 점에서 도대항대회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의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맥락에서 도대항대회가 현재의 북한이 만들려는 일상의 측면과 더불어 ‘정상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의 정책 실험적 면모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남북한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은 주로 체육 부문이 담당해 왔다. 이우태 등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시작으로 테탕트,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시기 등 굵직한 세계사의 기점에서 국제대회 단일팀 조직 논의를 통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왔다.<sup>4)</sup>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체육 분야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대표적

---

3)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20: 체육』(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777쪽.

4) 이우태·성문정·허정필,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9).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오랜 기간 체육의 정치적 역할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활용해 남북 간의 체육교류,<sup>5)</sup> 국제대회 단일팀 조직 논의<sup>6)</sup> 등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거나 교류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정치, 외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sup>7)</sup>들은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 대중체육에 관한 연구는 전문체육이나 체육교류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무래도 북한사회 내부를 공식 담론이나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기대지 않고서는 면밀히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대중체육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교과과정 분석이나 남북 체육교과 비교<sup>8)</sup> 혹은 시기별 체육교육과 학교체육을 통한 국가 권력 통치방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sup>9)</sup>

- 
- 5) 하숙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수단으로서 남북단일팀의 활용가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스포츠학회』, 제18권 3호(2020); 손환·이찬우, “남북스포츠교류의 역사적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4권 4호(2019).
- 6) 김재우, “동경올림픽대회(1964)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4호(2013); 이현우·김재우, “제6회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 코리아 단일팀 참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1권 2호(2016).
- 7) 정기웅, “남북한 교류에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OUGHTOPIA』, 제25권 3호(2010); 장효,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체육교류정책에 관한 고찰”(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8) 이정민·전하윤, “남북한 학교 무용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예술연구』, 제26권 (2019); 이승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본 체육 통일교육 발전방안,” 『인문사회21』, 제9권 4호(2018).
- 9)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 활동의 변화,” 『체육사학회지』, 제10권 2호(2014); 이성수,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학교체육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9권 3호(2016); 조진수, “북한에서 학교체육을 통한 몸의 통제”(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정치적 협상이나 사회문화교류에서 높은 지분을 차지하는 체육 분야이지만, 북한 연구 분야에서 북한 체육사업에 대한 기초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북한 대중의 체육 참여활동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대중체육대회를 다루는 것은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체육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도로 시작된 도대항대회는 그간 북한 권력이 중요시해 온 대중체육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혹은 기존의 체도를 답습하고 있을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먼저 2013년 신설된 도대항대회의 정형을 살펴본다. 대중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일찌감치 설파해 온 북한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만든 대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인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기존의 대중 대상 체육대회의 정형과 비교하여 대회의 특징과 신설의 의미를 찾아본다. 그리고 도대항 대회에서 두드러지는 유희성의 사회적 함의도 밝힌다.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간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의 접근법을 택한다. 북한 사회를 관통하는 공식 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공식매체이며,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만, 다른 공간에서 발행하는 이유로 조금 더 미시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조선신보』를 주된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1차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도대항대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 체육뿐만 아니라 현 김정은 시기의 북한 사회를 조망하는 2차 자료 역시 적극 참고한다.

## 2. 북한 대중체육의 기본 목표와 종합대회

### 1) 대중체육의 목표

북한에서 체육을 대중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체육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화는 “모든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의 목표는 대중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은 인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보장하고 이들이 강한 체질과 건전한 사상을 바탕으로 건국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노동계급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대중체육을 앞세웠다. 북한 체육은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대중체육의 발전을 중시한다. 전 인민이 참여하는 대중체육의 양적 성장을 통해 질적 전환을 일으키고 그 결과물로서 전문체육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구조는 학교체육을 대중체육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과외 활동 및 전문체육소조를 통해 향후 전문선수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을 선발·양성하여 국가의 직업 배치를 통해 구현된다.

북한의 체육사업은 대중체육과 전문체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분야의 집행단위는 차이가 있다. 이는 체육사업의 대상자이자 주체인 인민이 속해 있는 영역이 다름에서 기인한다. 북한은 대중체육사업을 수행할 주체를 각 계층의 근로단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조선직업총동맹, 농업종사자

---

10) 최상화, 『주체의 체육사상리론(제2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82쪽.

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직장에 속하지 않은 일반 여성들의 체육활동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 담당하여 대중체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체육이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사회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인이 근로단체 중앙기관이어야 하지만, 체육지도위원회는 체육사업의 통일적인 지도를 맡고 있으므로 대중체육 담당 중앙기관들과 협력을 할 것을 강조한다.<sup>11)</sup>

대중체육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중요 거점으로 삼아 진행되고 성인 대중체육활동은 개인이 속한 각종 기관, 기업소 혹은 협동농장 등 각 단위별 체육지도기관과 근로단체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체육이 있지만 사회인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는 체육활동을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체육활동은 체육소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기념일이나 명절에 조직하는 각종 경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 2) 종합체육대회

『광명백과사전』은 종합체육경기대회가 “광범한 청소년들과 근로자들, 체육인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높은 정치사상적 및 고상한 도덕의지적품성의 소유자로 키워내며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전문선수들의 경우 공화국선수권대회를 필두로 매해 9차례 정도의 종합체육경기대회를 연다. 개최되는 시기는 김일성, 김정일 등 전·현 지도자의 생일 기

---

11) 최상화, 『주체의 체육사상리론』, 146쪽.

12)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20: 체육』, 777쪽.

념, 당 창건 기념일 등의 국가행사 시기이다.<sup>13)</sup> 이 대회들은 대부분 도(시), 전문체육단 소속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개인 및 체육단의 실력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비전문 체육인이 참가하는 대회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은 인민체육대회이다.

인민체육대회는 1960년에 시작, 1963년 제2회 대회부터는 5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2008년까지는 인민체육대회 겨울철종목경기가 따로 진행되었지만 2012년부터는 여름철종목 위주로 개최되었고 2016년 제13회 대회까지 진행되었다. 인민체육대회는 전문체육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북한에 보급된 대부분의 체육경기들이 대회종목으로 치러진다. 도대항대회와 비교할 일반 부문 경기는 축구와 농구, 배구 등의 구기 종목과 육상 수영 등의 종목, 태권도와 씨름, 그네 등의 민족체육 종목 등으로 10여 개 종목이 도(시)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인민체육대회 대중부문은 인민들이 당의 대중체육방침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인민체육대회 이외에 부문별 대중에 참가하는 전국단위 대회로는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1999년 신설),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2001년 신설),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1999년 신설), 예술인체육대회(1970년 신설),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2013년 신설) 등이 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신설되었고, 이 대회는 매해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열린다.<sup>14)</sup>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인민 전체를 참가 대상으

---

13) 통일부, “체육 대회,”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16>(검색일: 2023년 2월 17일)

14) “보건부문에 비약의 박자를 가해주는 의의깊은 체육경기대회,” 『로동신문』, 2014



로 기획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당 간부 및 특정 기관 종사자 등 각 집단의 결속을 목표로 진행된다.

북한은 인민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체육경기대회를 대중체육의 발전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이자 실제 몇 안 되는 여가활동으로 삼고 있다. 도대항대회 역시 기본적으로 대중체육의 목적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따른 변화를 피해 가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이를 확인해 보겠다.

### 3. 도대항대회의 구조와 특징

2013년 10월 ‘전국도대항군중체육경기’로 시작한 도대항대회는 2014년부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서기연도’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당창건기념일과 체육절이 있는 매해 10월경 평양에서 개최되고 있다. 다른 대중체육경기대회가 선군절(선군정치를 시작한 날로 김정은과 연관), 광명성절(김정일 출생일) 등 북한 권력과 관련된 명절에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체육절과 당창건기념일을 기념하여 열린다는 것은 대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2020년 대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2021년 재개되었는데 이해에는 태양절을 기념해 4월, 2022년은 공화국창건일을 기념하여 9월 초에 진행되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표 1〉 참고).

『로동신문』에는 2008년과 2009년에 유사한 명칭의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기록이 있으나 해당 대회는 도 단위 소속 전

---

년 4월 28일.

문체육선수단 1,000여 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였다.<sup>15)</sup> 도대항대회는 기존에 진행되던 부문별 대중체육대회를 종합한 모양새로 각 계층의 근로자들과 여성, 어린이, 청소년 및 전문체육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의 대회이다. 그렇다고 하여 도대항대회가 기존의 대중체육대회 전체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계층별 전국 단위 체육대회 역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항대회 신설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주 비교 대상으로 인민체육대회를 선택했다.

### 1) 대회 명칭

도대항대회 공식 명칭은 서기연도를 병기하는 방식을 택한다. 북한은 인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올림픽이나 국제경기를 보도할 때에도 연도를 표기하기보다 대회 차수를 표기한다. 그래서 2014년 도대항대회부터 북한의 각종 출판보도물에서 보이는 ‘주체연호(서기연도)’의 표기법에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 짚어 볼 지점이다. 주체연호는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기점으로 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199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주체연호가 가진 상징에도 불구하고, 대회 연도 표기 변화의 시작과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여전히 출판물과 매체에서 서기만 표기하는 방식은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전 계층이 참가하는 체육경기대회에 서기만 표기하는 이유는 세계 기준을 쫓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

---

15)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 개막,” 『로동신문』, 2008년 6월 10일;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 폐막,” 『로동신문』, 2009년 6월 27일.

포츠는 축구이다. 한광성, 박광룡, 최성혁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고,<sup>16)</sup> 북한 내에도 가장 상위 수준인 1부 리그에 남녀 각 12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북한 내 축구의 인기를 증명하는 근거이다. 월드컵을 비롯한 화제의 해외 경기는 조선중앙TV가 녹화중계도 한다. 이때 북한 당국의 의도 여부와는 별개로 경기 영상을 통해 해외 경기장, 광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인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해외 축구리그의 경우 대회명을 표기할 때 서기연도를 대회명 뒤에 붙인다. 영국 프로축구 1부 리그의 현재 시즌을 'Premier League 2022-23'로 표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시간을 문장 말미에 위치시키는 영어 어순에 따른 것으로, 연도를 먼저 쓰는 우리말의 어순에서는 어색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영어 어순을 따라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서기연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일반 대중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에서 주체연호 표기의 변화는 적잖이 상징적이다.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상징물을 대체하고 범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 표기를 따른다는 것은 그간 북한의 체육 사업을 인민을 교양하고 통제하는 정치수단으로 간주해 왔던 연구동향과 거리가 있다.<sup>17)</sup> 북한의 시장화와 함께 외부 문화가 장마당을 통

---

16) 2020년 8월, 오스트리아 1부 리그 장크트 필텐 팀 소속이던 박광룡은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로 인해 본국으로 방출결정이 났다. “오스트리아 축구팀서 활동 북한 박광룡, EU 제재로 방출,” MBC뉴스, 2020년 8월 4일,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64166\\_32640.html](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64166_32640.html)(검색일: 2020년 8월 17일).

17) 정권이 조직적으로 여가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할 방편으로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조직하는데 주민들은 이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권력이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방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아래로 향하던 권력의 방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대회명칭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나영일 외, 『북한의 체육과 여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59쪽.

해 유입되어 엄격한 통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의 문화를 비롯한 외부의 생활양식을 접하고 있는 인민들의 변화에 일정 부응하는 권력의 태도 변화로 조심스레 볼 수 있다. 이는 일찌감치 세계와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체육 분야의 세계화 경향이 더해진 것으로 체육계의 변화는 2021년 태양절 기념 조명축전인 ‘빛의 조화-2021’의 사례처럼 타 문화행사 명칭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2) 참가선수 선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회 대회에 참가한 팀은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 강원도, 남포시 등 10개 팀이며, 2회 대회부터 평양시와 라선시가 참가하면서 완전한 전국대회가 되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직할시를 포함하여 총 12개로 나뉘어 있는데 라선, 남포는 개별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특별시로 승급되었다. 그러나 개성시는 2020년에 특별시로 승급되어 2019년 대회까지는 시 이름으로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참여종목과 참가팀의 확대는 선수와 응원단을 망라하여 2,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1회 도대항대회의 흥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도대항대회를 정례화하여 인민들이 건장한 체력으로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했다.<sup>19)</sup> 새로운 형태의 전국 체육대회는 2회

---

18) “북, 새 ‘치안총수’에 김정호...“개성시, 특별시로 승격”, 연합뉴스, 2020년 2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61400504>(검색일: 2023년 2월 17일).

19) “위대한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 『로동

〈표 1〉 연도별 도대항대회 개괄

개최일	경기종목	비고
2013. 10. 1. ~10.	룽구(전문체육) 배구, 탁구, 씨름, 비줄당기기(대중체육) 공안고 머리우에 이고 달리기, 이어달리기(유희경기)	당시 명칭 전국도대항 체육경기
2014. 10. 1. ~10.	남녀 1,500m달리기(전문체육) 청소년여자축구, 남자배구, 여자룽구, 로라스케트, 사격, 장애물극복달리기종목, 씨름, 비줄당기기, 태권도, 그네뛰 기(대중체육) 웃놀이, 공안고이고 어린이손목잡고달리기(유희경기) 등	평양시, 라선시 참가
2015. 10. 22. ~31.	남자축구, 모형항공무선조종교예 (전문체육) 남자룽구, 여자배구, 탁구, 정구, 수영, 태권도, 씨름, 비 줄당기기, 웃놀이, 장애물극복달리기(대중체육) 풍선터뜨리기, 뿔을 코뿔고 머리로 받아서 꺼내기, 물고 기 코뿔고달리기, 나무심고 열매따기(유희경기)	전해 대비 종목 증가 총 17개 종목
2016	미개최(13차 인민체육대회 개최)	
2017. 10. 17. ~28.	여자축구, 남자룽구, 남자복싱, 탁구, 모형항공무선조종교 예(전문체육) 여자배구, 정구, 태권도, 씨름, 장애물극복달리기, 비줄당 기기(대중체육) 3개 종목 유희경기	
2018. 10. 1. ~10.	탁구, 룽상, 여자룽구, 모형항공(전문체육) 남자배구, 바드민턴, 태권도, 씨름, 비줄당기기, 장애물극 복달리기(대중체육) 발목매고 공볼머 달리기 등 2종목(유희경기)	
2019	미개최	2019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한 휴회 추정
2020	미개최(코로나19 유행)	코로나19 유행
2021. 4. 5. ~15.	축구, 태권도맞서기 등(전문체육) 배구, 탁구, 비줄당기기(대중체육)	태양절 기념
2022. 9. 3. ~9.	비줄당기기, 활쏘기, 이어달리기 외	공화국창건일 기념

자료: 『로동신문』(2013~2019), 『조선신보』(2021, 2022), 국내 언론을 참고해 필자가 재구성함.

신문』, 2014년 1월 1일.

대회부터 대중체육 정책상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모두 잡은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였다.

행정구역별 선수 선발은 자율적으로 진행되지만 선발 일정과 큰 틀의 선발체계는 정형화되어 있다. 우선 도대항대회 개최 전 전승절(7월 27일)을 기념하는 시군별 각종 체육경기를 진행하여 1차 선발한다. 이후 선군절(8월 25일)을 기념하는 대항경기를 조직하여 해당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선수선발사업을 완료한다.<sup>20)</sup>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실천에서 검증된 우수한 새 선수를 선발하는 원칙”에서 선수 선발을 진행하는데 이는 전 인민이 참여하는 대중체육의 양적 성장을 통해 전문체육 강화라는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북한 체육사업의 기본 목표를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1)</sup> 기존에 없는 형식의 체육 이벤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북한 체육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각 도(시)별 팀 구성은 지역별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내 경기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여 조직한 경우도 있고 지역 내 기존 팀 중 우수한 팀이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sup>22)</sup> 각 도(시)체육위원회는 대회 출전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스카우트팀을 구성, 행정구역 내 체육관과 운동장을 순회하면서 경기를 관람하고 대중경기 부문 아마추어 선수들과 전문체육부문 대표팀을 발굴한다.<sup>23)</sup> 2018년 대회 태권도 단체틀 경기 2등을 한 평안남도 태권도 팀은 선수 구성에서 보인 성과를 선전했다. 태권도선수단에서 차출된

---

20)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열린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18일.

21) “우승의 비결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 있다,” 『로동신문』, 2015년 3월 31일.

22) “10월의 체육열풍,” 『로동신문』, 2015년 11월 16일.

23) “大衆スポーツの広がり,” 『조선신보』, 2017년 10월 30일.

전문 선수들이 아닌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와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직원들 중 기업소에서 태권도를 배운 선수들이 탐의 주축이 되어 출전 후 수상하여 대중체육의 결실로 그려졌다.<sup>24)</sup> 같은 해 황해남도 배드민턴 팀은 도내에 수상 경력이 있는 우수한 선수들이 있었으나 여러 군에서 추천된 교원들을 위주로 ‘대담하게’ 팀을 조직하여 당의 체육 대중화와 생활화 방침을 현장에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5)</sup>

대중을 위한 체육 행사이지만 행정단위 경쟁구도로 인해 선수 출신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위의 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도대항대회의 의의를 살려 참여하고자 하는 다수의 대중에게 기회를 주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회가 추구하는 인민 모두를 위한 체육축전이라는 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가종목에 유희경기의 비율이 적지 않은 이유와도 연결된다.

그에 비해 인민체육대회의 경우는 도대항대회처럼 우수한 선수를 따로 선발해 팀을 조직하기보다 해당 지역에 만들어진 팀 자체 예선 경기를 통해 대표로 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10차 대회 여자배구 일반부문 우승팀인 리원대흥가공사업소, 12차 대회 여자배구와 여자농구 우승팀인 평양시 중앙정보통신국 등 팀명에 기업소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sup>26)</sup> 도대항대회는 타 대회들과 달리 팀 구성에 있어 기존의 집단 범주를 넘어 일정 부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4) “당당한 선수로 되기까지,” 『로동신문』, 2018년 10월 12일.

25)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한 보람,” 『로동신문』, 2018년 10월 7일.

26) “체육과 더불어 성장하고 체육과 함께 강해졌다,” 『로동신문』, 2003년 11월 6일;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로 자랑 많은 일터,” 『로동신문』, 2012년 12월 9일.

### 3) 경기 종목

대회 기간 조별연맹전은 모든 지역팀이 2개 조로 참가한다. 각 조의 1, 2위를 차지한 팀은 대각경기(폴리그)와 직선경기(토너먼트), 나머지 팀들은 직선경기를 진행하여 1위부터 12위까지 순위를 결정한다.<sup>27)</sup>

도대항대회 종목은 차수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 앞서 제시했던 <표 1>은 전문선수들과 대중체육경기, 체육유희경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28)</sup> 개최종목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비율상으로 전문경기에 비해 대중체육경기와 체육유희경기에 훨씬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참가자들이 선수로 출전하는 만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1980년대 한국의 TV에서 주로 다루었던 운동회 형식의 프로그램과도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유희프로그램으로 대회를 기획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대중체육 부문 종목은 민족체육경기와 국방체육경기, 인민대중이 실제 많이 참여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체육경기의 대표적 종목인 씨름과 바줄당기기(줄다리기)는 1회 대회부터 명목을 잇고 있으며 북한 체육의 승산종목인 탁구와 사무원 종목으로도 불리는 배구 역시 대중이 참가하는 주요 종목이다. 승산종목은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분류하는 용어로 체육 전문화 정책에 기반을 둔다. 육상, 역도, 축구, 권투, 마라톤 등 9가지 종목이며 이중 언급한 세 종목은 북한 인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종목”으로 분

---

27) “온 나라를 세차게 격동시킨 10월의 체육열풍,” 『로동신문』, 2013년 10월 15일.

28) 2021년과 2022년 대회 종목은 『로동신문』으로 확인할 수 없어 국내언론에 소개된 종목들만 기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추세까지 반영하기 힘들었음을 미리 밝힌다.



류한다.<sup>29)</sup>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는 대회종목은 참가하는 인민들의 취향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2회 대회부터 평양시가 참가한 것은 이 변화를 추동한다. 김정은이 선대와 달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만 장기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과 인민들의 개별적인 여가소비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이 제기되었다는 분석이 있다.<sup>30)</sup> 특히 문화체육시설은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에 따라 김정은 초기 시기 적극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도시,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경제 여력이 커지면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대항대회의 경기종목도 이 맥락에서 짚어 볼 수 있다. 일부 경제 상황이 나아진 인민들은 생존을 넘어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체육참여 행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과 달리 경제·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평양시민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한편 씩씩이가 커진 계층을 일부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체육 이벤트에 눈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1회 대회에서 대중체육 종목으로 배구, 탁구, 씨름, 줄다리기 등으로 단출하게 시작한 것에 비해 테니스,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등 다양한 종목이 편성되었다. 배구는 이미 북한 대중이 즐겨 하는 종목인 데다 공 하나와 경기 코트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구나 정구, 롤러스케이

---

29) 이나영, “북한의 여성체육 담론 연구: 여성 전문체육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19쪽.

30) 최봉대,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함의,”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2021), 316~317쪽.

〈표 2〉 부문별 대중체육대회 비교

대회명	시기	대회종목	대상
인민체육대회	2016.10.	농구, 축구, 배구, 탁구, 정구, 씨름, 태권도, 바드민턴, 그네, 널뛰기 등	도(시) 기업소 등 종사자
선군절경축 전국로동자 체육경기대회	2014.8.	축구, 사격, 태권도, 수류탄던지기, 400m 장애물극복경기 등	노동자, 직맹원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2014.4.	배구, 농구, 탁구, 바줄당기기, 집단달리기, 씨름 등	보건 분야 종사자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 경기대회	2014.1~2.	배구, 탁구, 농구, 태권도, 바줄당기기 등	당 중앙기관, 내각 및 중앙단위 간부

자료: 『로동신문』(2014, 2016)을 참고해 필자가 재구성함.

트 같은 종목은 신발, 라켓 등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sup>31)</sup> 국가 주도의 대회에 자본이 필요한 종목이 추가된 것은 평양시민들을 비롯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 본다.

그렇다면 도대항대회와 다른 대중 대상 체육대회의 종목에서 차이점이 있을까. 〈표 2〉에서 2014년에 진행된 다른 체육경기대회 내용을 정리했다. 참고로 인민체육대회는 4년 간격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2016년 대회를 비교했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대회들은 참가 대상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구 대회이다 보니 참가 선수도 노동자, 보건부문 종사자, 기관 간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인민체육대회를 제외한다면 도대항대회와의 차이는

31) 최봉대,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함의,” 328쪽.

확실하다.

기존의 대중 대상의 대회는 전문체육 경기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도대항대회의 특징은 여기에도 있다. <표 1>을 통해 2015년 대회부터는 전문체육 경기 비중도 늘고 있음을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집단의식을 고양하는 수단으로 체육사업이 활용되었던 과거에 비해 신설된 도대항 대회는 관람스포츠의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관람스포츠는 초기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체육이념에 적합하지 않았다. 북한의 체육목표도 그러하듯 국가를 위해 노동하는 튼튼한 신체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보기만 하는’ 소극적 형태의 관람스포츠는 배척의 대상이었다.<sup>32)</sup>

스포츠에서는 선수로서 대회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감정은 실상 선수만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기에 뛰지 않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전문선수의 경기가 필요하다. 국경을 막론하고 관람스포츠라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데는 인간 보편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대항대회는 응원단 접수를 순위에 반영한다. 관중이 대회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응원 기자재, 의상, 퍼포먼스 방식 등은 모두 응원단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는데 오로지 대회를 위해 응원단복을 5벌을 준비하는 지역도 있을 정도다.<sup>33)</sup>

<그림 1>은 2017년 도대항대회에 참가한 응원단의 일부 모습으로 다른 유니폼, 농구공이나 피켓 등을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직

---

32) 박원용,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부산: 산지니, 2019), 120-121쪽.

33) “大衆スポーツの広がり”.

〈그림 1〉 도대항대회 응원단 모습



자료: “North Korea’s annual inter-provincial mass sports contest begins,” <https://www.youtube.com/watch?v=twIJ5TrNCt0>(검색일: 2023년 1월 20일).

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전체 순위에 포함되는 응원단 퍼포먼스의 점수화는 기존에는 없었던 참여와 관람이 혼합된 형태, 즉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존중” 체육 이벤트의 정형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sup>34)</sup>

도대항대회는 종목의 다양성에도 타 대회와 차이가 있다. 인민체육 대회는 북한 체육사업 발전 정도를 점검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축구, 농구, 육상, 수영 등 주요 종목과 함께 북한이 중요시하는 씨름, 그네뛰기 등의 민족체육 종목 10여 개가 편성된다.<sup>35)</sup> 반면 도대항대회는 앞서 살펴본 대로 대체로 체육경기라 보기 힘든 유희경기가 다수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운동회나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에서 할 법한 레크리에이션 경기들이 주를 이룬다. 다른 대중체육경기대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의 상이한 편성이 도대항대회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회의 특징으로서 유희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34)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천리마』, 2호(2016).

35) “체육의 대중화가 꽃피운 자랑찬 결실,” 『로동신문』, 2003년 12월 7일.

## 4. 도대항대회 유희성의 사회적 함의

### 1) 사회주의문명국 사업 표본 제시와 인민의 포섭

김정은 시기의 북한의 공식담론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이다. 한재현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사회주의문명국,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의 권력이 조국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메시지 중심이 아닌 인민의 필요와 취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녹이기 위한 시도로 보았다.<sup>36)</sup> 인민은 강성국가를 건설할 주체로서 권력에 의해 적극 호명되었는데 이를 위한 정치 신조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인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체육여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2013년 개건된 평양체육관,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는 김정은 시기 대표적인 시설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문명국의 상징”이라 말한다.<sup>37)</sup>

강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문명강국을 만들겠다는 발로, 이를 실현할 주체인 인민의 취향을 반영하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체육 이벤트가 바로 도대항대회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서기연도 사용, 기록이 우선인 프로페셔널한 경기 대신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희경기가 버무려진 ‘운동회’ 형식의 전국 규모 대회는 변화하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두기 위한 결과물이다. 도대항대회는 대중의

---

36) 한재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소비정책과 담론,” 『인문사회21』, 제12권 3호 (2021), 2838~2839쪽.

37) “위대한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떨어지는 관심을 국가로 붙잡기 위한 북한권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요한 하위징아는 놀이에서 스포츠가 분리되면서 스포츠 기술과 성과는 발전했지만, 그것이 문화 창조의 행위가 되기에 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놀이였던 신체경쟁은 건강과 복지, 제레라는 신성함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놀이와 분리된 스포츠는 이런 요소들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sup>38)</sup>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도대항대회는 즐길 수 있는 경쟁경기와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을 혼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한국사회에도 있다. 제5공화국 당시 스포츠 육성정책이다. ‘스포츠공화국’으로도 불렸던 전두환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를 활용했다.<sup>39)</sup> 특히 도대항대회와의 유사한 사례는 MBC 프로그램인 명랑운동회로 보이는데 대회를 만든 시기적 요인도 비슷하다. 명랑운동회는 1976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 해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첫 금메달을 딴 해이기도 했다. 볼 것, 즐길 것이 많지 않았던 당시 일요일 오전 텔레비전으로 온 가족이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경기는 국민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sup>40)</sup> 명랑운동회를 비롯하여 프로야구리그 등의 스포츠 정책은 사회 내부에 억압이 강해질수록 터져 나올 정치에 대한 불만을 스포츠로 눈을 돌리게 하여 시민들을 탈정치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기

---

38)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이종인 옮김(고양: 연암서가, 2010), 373쪽.

39) 김학선, “신군부 정권의 가속 통치와 ‘3S 정책,’” 『사회와 역사』, 136호(2022), 290쪽.

40) “[김영준의 TV가이드] ‘명랑운동회’와 ‘런닝맨,’” 『영남일보』, 2016년 9월 2일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60902.010400906320001/>(검색일: 2023년 2월 16일.)

도 한다.

이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탈정치화 경향과는 달리 김정은은 도대항대회로 낱을 사회적 효과, 즉 인민을 국가로 포섭하기 위해 체육을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선전하며 북한을 외부에 내세우기에 스포츠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sup>41)</sup> 더불어 체육 활성화와 여가거리 제공을 위해 인민의 취향을 반영한 대회를 신설했다. 북한 체육정책은 인민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교양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사업을 통해 인민을 통제하려는 경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그 전에는 찾기 어려운 아래의 변화를 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향의 반영은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민들을 국가라는 틀 안으로 다시 위치시키려는 의도라고 추측할 수 있고 롤러스케이트나 테니스 같은 대회 종목의 신설은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여러 체육여가시설들이 인민을 위한 시설임을 선전하기에 도대항대회는 적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도대항대회는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즐기도록 관람 스포츠 이벤트의 요소를 다분히 섞어 두었다. 성별과 나이를 떠나 지역에서 선발된 선수들을 위한 대회이기도 하지만, 전문체육의 종목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에서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내리그를 운영하는 농구와 축구 등 종목을 매해 배치해 두어 스포츠 관람의 흥미를 더한다. 더불어 공식적인 응원단 조직도 중요한 요소다. 선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응원단 모집은 보편적인 스포츠 경기라면 당연

---

41)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4년 10월 13일.

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체육이론에도 경기 관람과 응원 조식을 체육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집단의 힘을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한다.<sup>42)</sup> 심지어 도대항대회에서 관중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응원경쟁이라 꼽힐 정도이다.<sup>43)</sup>

이처럼 도대항대회는 국가를 위한 신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체육이 아닌, 집단이 즐기는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보고 느끼는 형태의 대회라는 점에서 인민을 국가에 적극 포섭하는 수단이 된다. 북한 권력은 문명화라는 관점에서 내부의 갈등을 체육으로 돌려 긴장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읽을 수 있다. 더불어 더 넓은 범위에서 타자와 비교하여 자기통제, 인간성의 발전 등이 문명화된 척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기존에 배척하던 자본주의적 관람 스포츠 요소를 '새롭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의도성 여부를 떠나 북한 사회가 국가담론에 부합하는 문명한 집단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담론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44)</sup>

김정은 시기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은 시장화 이후의 사회 변화를 국가가 수용하고 북한식의 세계화된 문화를 만드는 동력이다. 정영철은 모란봉악단을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는데,<sup>45)</sup> 1회 도대항대회가 끝난 후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특별공연을 개최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sup>46)</sup> 김정은은 음악판 국

---

42) 최상화, 『주체의 체육사상리론 (제2판)』, 226쪽.

43) “온 나라를 세차게 격동시킨 10월의 체육열풍,” 『로동신문』, 2013년 10월 15일.

44)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에릭 더닝(Eric Dunning), 『스포츠와 문명화』, 송해룡 옮김(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45)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22쪽.

46)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만을 떨쳐가리,” 『로동신문』, 2013년 10월 16일.



가문화와 체육관 국가문화의 전형을 인민들에게 적극 제시하여, 문명화되고 현대화된 국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한 인민들은 김정은이 제시한 국가 담론과 몸으로 만나게 되고 담론을 실천할 당사자로 구성되는 효과를 낳는다.

## 2) 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북한식 스포츠 복지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은 개인의 행복 지수를 나타내면서도 사회정의의 실현 정도와 선진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 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스포츠 활동은 인간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도록 내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스포츠를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는 통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sup>47)</sup>

스포츠를 사회복지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보편적 형태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즉 성별, 연령, 계층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둔다. 특히 생활체육의 강조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켜 의료보험 비용 증대라는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하는 결과를 목표로 삼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예방의학 방침을 고수하는 북한은 인민들이 위생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환경 조성에 관심을 쏟는데, 이 역시 사회주의문명강국 담론에 포함된다.<sup>48)</sup> 북한 대중체육의 목표인 “노동과

---

47) 이정학,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여가스포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5권 1호(2007), 153쪽.

48)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5년

국방에 인민들을 튼튼히 준비시킨다”라는 문구는 국가를 위한 신체양성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해 인민의 건강을 담보하겠다는 목표도 담겨있다. 그러므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 참가자들의 비율이 높은 도대항대회는 기존에 구축된 대중체육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북한식 스포츠복지로 읽을 수 있다. 대중스포츠가 확산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의 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력을 제공한다. 『조선신보』 기사에 따르면 평양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인터뷰이는 도대항대회 준비를 하면서 테니스 훈련을 통해 일할 때 피로감이 적으며 휴일 여가로 테니스를 하면서 매일 밝고 건강하게 사는 중요한 습관을 들였다고 대중체육이 건강한 삶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sup>49)</sup>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소외계층과 스포츠 비참여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대중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sup>50)</sup> 북한 체육시설은 대체로 학교, 체육단이 속한 행정단위와 체육단체의 책임하에 건설된다. 대규모 시설은 국가의 현대화와 문화시설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실현할 기초 시설들은 각 시(도)와 교육기관, 기업소 등의 자력에 의존한다. 주지하다시피 충분치 않은 지방의 재정 상황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체육시설 투자는 기록하지 않다. 그렇기에 체육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자들과 인민의 참여를 독려하

---

11월 16일.

49) “大衆スポーツの広がり”.

50) 이성노·맹이섭, “공공스포츠센터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2호(2020), 220쪽.

는 방법으로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을 활용한다. 김정일의 지시로 시행된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은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의 진척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학교나 기업소, 시에서 진행되는 체육경기대회, 인민체력검정 성적, 체육소조 운영 실태 및 체육시설과 기자재 보급 현황이 순위에 반영된다.<sup>51)</sup> 특히 모범체육시로 선정이 되면 관련 최고인민회의 정령이 『로동신문』에 실리고, 해당 단위들의 모범 사례가 기사화되는데, 체육 성과를 바탕으로 단위의 경제력 혹은 생산성의 우수함을 인정받게 된다.<sup>52)</sup> 그렇다 보니 체육시설 건설은 당 간부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언급한 북한의 모범체육단위 제도가 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집중된 행정이지만 정책 자체는 체육 참여기회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 재개관한 평양체육관의 첫 행사로 도대항대회를 열고, 각 행정단위 담당자와 당 간부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체육 기자재나 물자를 제공하는 사례는 표면적이나마 체육 참여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53)</sup>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체육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참여기회 확대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담론에 의해 신설되는 현대화된 문화시설들이 자금의 여력이 있는 계층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여가소비의 계층적 차별을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여가 프로그램으로서의 대중체육 기능에 균열도 목격된다.<sup>54)</sup> 2차 대

---

51)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287~288쪽.

52) “이런 투쟁기풍이 체육강국의 래일을 앞당긴다,” 『로동신문』, 2017년 5월 14일.

53) “大衆スポーツの広がり”.

54) 최봉대,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함의,” 329쪽.

회부터 참여한 평양시가 줄곧 대회 1등을 차지하는 등 경기력의 차이와 문화시설의 편중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북한의 체육 참여기회 불평등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 한계도 명확히 보인다. 이는 체육시설 건설 관련 정책이 평양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역동적으로 실행한 결과인데, 체육시설 분포가 높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의 경기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세하다는 현상을 포착한 최진환 외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sup>55)</sup>

## 5. 결론

김정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도대항대회의 신설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공식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도대항대회의 특징과 이 대회에서 두드러지는 유희성에 관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대항대회는 주체연호 대신 서기연도를 표기한 인민 대상의 연례 종합체육대회라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북한 공식행사에는 김일성의 생년으로부터 시작하는 주체연호를 표기하고 있지만, 이 대회는 여느 국제대회처럼 서기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당시 새롭게 집권한 김정은 정권의 ‘정상국가’ 이미지 확립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스포츠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세계화의 경향이 명칭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

55) 최진환·이우영·엄현숙, “김정은 시대 체육시설의 변화와 의미: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5권 2호(2019), 218쪽.

둘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층과 종목 면에서 기존에 북한에서 실시하는 대중 대상의 체육대회와 차별점을 보였다.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도(시)별 자체적인 선수선발 과정을 거쳤다. 또한 참가팀별 응원단을 조직하고 응원 퍼포먼스도 대회 순위에 반영하여 관람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장치를 채택했다. 매해 고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취향을 담은 경기종목도 눈에 띄었다. 또한 관중들의 흥미를 위해 전문체육경기를 적절히 포함시켜 관람요소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처럼 볼거리와 참여 요소들을 섞은 새로운 형태의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북한 권력이 인민의 눈과 마음의 향방에 쏟고 있는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인민들이 선수로 구성되는 만큼 전문성을 높이는 종목보다 유희경기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갈수록 국가로부터 멀어지려는 인민의 관심을 붙잡기 위한 권력의 변화로 읽을 수 있었다.

시장화로 인해 일부 인민들의 경제적 상황 호전은 삶의 질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한다.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해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한 북한은 대외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한 의도와 함께 대내적으로 인민의 다양해지는 취향을 국가가 제어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자본이 필요한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는 계층이 나타났고 도대항 대회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국가를 위한 몸을 만들고 체육 정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대중 체육대회에서 인민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 도대항대회는 김정은 시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첫 체육문화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고 결승경기 참관 등으로 적극 독려하고 있는 도대항대회는 팬데믹 상황인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속됨으

로써 체육 참여 기회를 높여 인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과 더불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역시 평양의 일부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포츠복지 측면에서 체육 참여를 막는 전통적 변수 중 일부 요소는 북한에서도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도대항대회에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대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체육 참여가 쉽지 않은 집단에 대한 대책은 아직 부족했다.

더불어 북한의 공식 매체만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은 실제 인민의 기호를 반영하고자 하는 북한의 국가담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다. 공식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도대항대회의 특징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뒷받침되는 후속연구가 이어져 북한 대중체육 연구를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접수: 3월 11일 / 수정: 4월 3일 / 채택: 4월 10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20: 체육』(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최상화, 『주체의 체육사상리론(제2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 2) 논문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천리마』, 제2호(2016).

#### 3) 신문

“당당한 선수로 되기까지,” 『로동신문』, 2018년 10월 12일.

“大衆スポーツの広がり,” 『조선신보』, 2017년 10월 30일.

“보건부문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주는 의의깊은 체육경기대회,” 『로동신문』, 2014년 4월 28일.

“은 나라를 세차게 격동시킨 10월의 체육열풍,” 『로동신문』, 2013년 10월 15일.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4년 10월 13일.

“우승의 비결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 있다,” 『로동신문』, 2015년 3월 31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만을 떨쳐가리,” 『로동신문』, 2013년 10월 16일.

“위대한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이런 투쟁기풍이 체육강국의 래일을 앞당긴다,” 『로동신문』, 2017년 5월 14일.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열린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18일.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 개막,” 『로동신문』, 2008년 6월 10일.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 폐막,” 『로동신문』, 2009년 6월 27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5년 11월 16일.

“체육과 더불어 성장하고 체육과 함께 강해졌다,” 『로동신문』, 2003년 11월 6일  
 “체육열풍과 더불어 마련된 의의깊은 체육대회들,” 『로동신문』, 2019년 10월 13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한 보람,” 『로동신문』, 2018년 10월 7일.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로 자랑 많은 일터,” 『로동신문』, 2012년 12월 9일.  
 “체육의 대중화가 꽃피운 자랑찬 결실,” 『로동신문』, 2003년 12월 7일.  
 “10월의 체육열풍,” 『로동신문』, 2015년 11월 16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나영일·현주·안지호·신영진·진현주·성제훈, 『북한의 체육과 여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박원용,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부산: 산지니, 2019).  
 엘리야스, 노르베르트(Norbert Elias)·에릭 더닝(Eric Dunning), 『스포츠와 문명화』, 송해룡 옮김(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이우태·성문정·허정필,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9).  
 하위징아, 요한(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이종인 옮김(고양: 연암서가, 2010).

### 2) 논문

김재우, “동경올림픽대회(1964)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4호(2013), 17~33쪽.  
 김학선, “신군부 정권의 가속 통치와 ‘3S 정책,’” 『사회와 역사』, 제136호(2022), 255~306쪽.  
 손환·이찬우, “남북스포츠교류의 역사적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4권 4호(2019), 53~65쪽.  
 이나영, “북한의 여성체육 담론 연구: 여성 전문체육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성수,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학교체육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9권 3호(2016), 186~226쪽.
- 이성노·맹이섭, “공공스포츠센터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2호(2020), 219~228쪽.
- 이승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본 체육 통일교육 발전방안,” 『인문사회21』, 제9권 4호(2018), 1393~1406쪽.
- 이정민·전하운, “남북한 학교 무용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예술연구』, 제26권(2019), 241~267쪽.
- 이정학,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여가스포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5권 1호(2007), 149~164쪽.
- 이현우·김재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 코리아 단일팀 참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1권 2호(2016), 77~93쪽.
- 장효,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체육교류정책에 관한 고찰”(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정기용, “남북한 교류에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OUGHTOPIA』, 제25권 3호(2010), 385~417쪽.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8~38쪽.
- 조진수, “북한에서 학교체육을 통한 몸의 통제”(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최봉대,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함의,”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2021), 311~347쪽.
- 최진환·이우영·엄현숙, “김정은 시대 체육시설의 변화와 의미: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5권 2호(2019), 200~232쪽.
- 하숙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수단으로서 남북단일팀의 활용가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스포츠학회』, 제18권 3호(2020), 1007~1019쪽.
- 한재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소비정책과 담론,” 『인문사회21』, 제12권 3호(2021), 2835~2848쪽.
-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6호(2015), 449~461쪽.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 활동의 변화,” 『체육사학회지』, 제10권 2호(2014), 159~174쪽.

3) 신문

“[김영준의 TV가이드] ‘명랑운동회’와 ‘런닝맨,’” 『영남일보』, 2016년 9월 2일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60902.010400906320001>(검색일: 2023년 2월 16일).

4) 기타 자료

“북, 새 ‘치안총수’에 김정호... “개성시, 특별시로 승격,” 연합뉴스, 2020년 2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61400504>(검색일: 2023년 2월 17일).

“오스트리아 축구팀서 활동 북한 박광룡, EU 제재로 방출,” MBC뉴스, 2020년 8월 4일,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64166\\_32640.html](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64166_32640.html)(검색일: 2020년 8월 17일).

통일부, “체육 대회,”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16>(검색일: 2023년 2월 17일).

## The Recreational Characteristics of Kim Jong-un's Sports Events through the Inter-provincial Games

Lee, Nayeong (Independent Scholar)

The Inter-provincial Games (the Games) in North Korea is a national public sports event newly organized under the guidance of Kim Jong-un and is held almost every year. The Games, which is differentiated by the fact that the AD (anno Domini) year is used instead of 'Juche era',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ass sports events. All people can be selected as players by administrative units without age, gender, or class distinction. In addition, the Games adopts a method to increase people's participation by organizing cheering teams, with their cheering performances included in the rankings. The Games is composed of professional matches in consideration of spectator viewing factors, mass sports matches that reflect the people's preferences, and entertainment event, so the playfulness is prominent compared to other sports events. The Games shows the policy of 'building a strong sports nation' in the early days of Kim Jong-un's reign and is presented as a

model project of a socialist civilized state. Through the Games, North Korea is trying to portray itself externally as a normal country. Internally, considering public's preferences, it expects to draw the people from the ruling ideology and toward the state. In addition, the Games can be seen as part of North Korean-style sports welfare in terms of expanding people's participation in sports through newly built sports facilities. However, since it is focused on sports preferred by certain Pyongyang-centered social classes, the Games shows an inequality in sports participation, and is regarded as an attempt by the state to control the people's preferences.

Keywords: Inter-provincial Games, North Korean public sports, civilized socialist country, strong sports nation, North Korean sports, playfulness